

T. Hardy의 小說에서 본 自然

金 秀 宗

目 次

- | | |
|---------------|---------------|
| 1. 序 言 | 4. 創造的 性格의 自然 |
| 2. 自然의 性格 | 5. 自然과 人間의 調和 |
| 3. 破壞的 性格의 自然 | 6. 結 語 |

1. 序 言

Hardy의 小說에서는 거의 모든 作品에서 「自然」이 描寫되고 있다. 그런데 그가 描寫하는 「自然」은 단순히 景觀이나 背景을 描寫하는 客觀的인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반영되는 invisible한, spiritual한 性格이나 힘을 나타내는 主觀的인 것이며 매우 重要的 意味와 役割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自然」의 意味를 究明하는 것은 Hardy를 理解하기 위한 하나의 要諦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Hardy의 「自然」에 대한 一般的 概觀은 D. F. Barber가 “For Thomas Hardy nature is brutal, lowering dark and menacing”¹⁾이라고 말한 것처럼 非情, 殘酷, 暗黑, 冷酷 등이 그의 「自然」의 代名詞가 되고 있다. 게다가 그의 「自然」에 대한 具體的 批評의 一般的인 것으로서는 그의 「自然」이 人間의 內部에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人間의 外部에 있어서 人間을 破滅로 이끄는 physical한²⁾ 存在라고 생각하는 傾向이 있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自然」은 Irving Howe도 指摘하고 있는 것처럼 一定한 規準에 의해서 判定되는 것이 아니라 untheoretic한³⁾ 것이므로 몹시 變化하고 廣範圍의 意味를 지니고 있다. 그의 「自然」의 意味가 變化하는 과정만 보더라도 初期의 作品인 *A Pair of Blue Eyes*나 *The Return of the Native*에서 볼

1) D. F. Barber (ed.), J. Stevens Cox, *Concerning Thomas Hardy* (London: Charles Skilton, 1968), p. xi.

2) A. P. Elliot, *Fatalism in the works of Thomas Hardy* (New York: Russel & Russel, 1966), p. 82.

3) Irving Howe, *Thomas Hardy*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68), p. 21.

수 있는 擬人化되고 象徴化된 말하자면 人間の 外部에 있어서 「自然」의 힘을 나타내는 「自然」은 中期에는 별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The Mayor of Casterbridge*의 Henchard나 *The Woodlanders*의 Giles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人間の 內面에 있어서 人間을 支配하는 힘이 되고 있다. 그리고 後期 作品에서는 「自然」의 意味가 더 複雜化하고 人間の 內面에 보다 깊히 파고들어 人間을 支配하는 要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小論의 目的은 이러한 「自然」의 意味를 根本적으로 再檢討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그의 作品이나 思想과 結付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2. 「自然」의 性格

Hardy는 흔히 “nature” 또는 “Nature”라는 單語로 「自然」을 表現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自然」에는 人間을 支配하는 힘의 根源이 있다는 점은 否定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크게 區分한다면 破壞的 性格을 갖는 「自然」과 創造的, 建設的 性格을 갖는 「自然」으로 分類하는 것이 可能할 것이다.

먼저 破壞的 性格의 「自然」을 보면, 그것은 흔히 그의 「自然」의 典型이라고 看做되고 있는 것으로, 人間の 不幸에 대하여 전혀 無關心한 存在가 되고 있거나 人間을 破滅시키는 役割을 하고 있다. 後者의 한 例로서 *A Pair of Blue Eyes*에 登場하는 Knight가 “the cliff without a name” 앞에서 느끼는 「自然」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惡魔的 「自然」이라고 하겠다.

He could only look sternly at Nature's treacherous attempt to put an end to him, and strive to thwart her.⁴⁾

한편 創造的 性格의 「自然」은 創造主로서의 「自然」이거나 人間에게 慈悲를 베푸는 「自然」이며, 이것은 때로는 人間을 災難에서 救해주는 警告者나 指導者로서의 「自然」이다. 그 밖에도 人間과 모든 生物에 內在하는 活力을 意味하는 「自然」은 建設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創造的 性格의 「自然」 중에서 특히 Hardy가 關心을 보이는 것은 “She is as true as nature as fashion is false...”⁵⁾의 語句에서 보는 것처럼, 人工的인 것을 false로 보고 이것과 相反되는 true한 것, 즉 태어난 그대로의 狀態를 意味하는 「自然」이라고 하겠다.

Hardy의 「自然」에는 이처럼 “nature”라는 말로 表現되는 것 以外에 當然히 「自然」의 範疇에 놓고 생각되어야 할 要素가 남아 있다. 이러한 要素로서는 時間, 本能, 遺傳 등을 들 수 있다.

「時間」의 要素는 특히 *The Return of Ithe Native*, *Tess of the d'Urbervilles* 등에서 때때로 使用되고 있는 것으로, 重要的 意味를 갖는 것이다. 「時間」에는 過去, 現在, 未來라는 「時間」이 人間の 마음의 重荷로서 亡靈처럼 따라다니면서 人間에게 苦痛을 안겨주고 悲劇으로 이끈다든가, 혹은 時間과 事件과의 偶然의 一致가 人間の 運命을 支配하는 破壞的 一面과, 「時間」의 經過가 人間の 苦痛

4) T. Hardy, *A Pair of Blue Eyes* (London: Macmillan, 1918), p. 252.

5) T. Hardy, *The Hand of Ethelberta* (London: Macmillan, 1923), p. 60.

을 治療해준다는 建設的 一面과의 兩面性이 있다. 그 前者의 例로서는 Tess가 「내일」이라는 「時間」의 恐怖를 Clare에게 말하는 場面을 들 수 있을 것이다.

‘...And you seem to see numbers of to-morrows just all in a line, the first of them the biggest and clearest, the other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as they stand farther away; but they all seem very fierce and cruel and as if they said, “I’m coming! Beware of me! Beware of me!”’⁶⁾

後者의 例로서는 Tess가 저주스러운 過去에서 벗어날 方途를 오랜 歲月이라는 「時間」에서 찾아 내고 있는데에서 볼 수 있다.

At least she could not be comfortable there till long years obliterated her keen consciousness of it.(T. p. 127.)

「本能」의 要素는 人間의 希望이나 意思와는 無關하게 生命 全體에 作用하는 「自然」의 힘이다. Hardy는 이 「本能」을 “the appetite for joy”, “the invincible instinct towards self-delight,” 또는 “the inherent will to enjoy” 등으로 表現하고 있다. 그것은 野生動物이 어떤 먹이를 쫓아 前進하는 것처럼, 人間이 希望, 幸福을 追求하는 一種의 衝動的 「本能」이며 性的衝動, 欲望을 뜻하는 것이다.

The ‘appetite for joy’ which pervades all creation, that tremendous force which sways humanity to its purpose, as the tide sways the helpless weed, was not to be controlled by vague lucubrations over the social rubric.(T. p. 246)

「遺傳」의 要素는 例컨데 Tess에게서 가장 確然히 表現되어 있는 것이다. Tess의 悲劇의 하나의 原因은 그녀의 意思에 反하여 Alec을 魅惑케 한 母親 물림의 早熟한, 豐滿한 肉體라 할 수 있겠다. 勿論 이 要素도 人間에게 不利益한 面과 利益한 面과의 兩面性을 갖는 것이다.

She had an attribute which amounted to a disadvantage just now; and it was this that caused Alec d’Urberville’s eyes to rivet themselves upon her. It was a luxuriance of aspect, a fullness of growth, which made her appear more of a woman than she really was. She had inherited the feature from her mother without the quality it denoted. (T. pp. 48-9)

이처럼 Hardy의 「自然」은 physical하고 visible한 「自然」에 限定되는 일은 극히 드물며 거의가 visible한 「自然」에 或種의 道德的 意味나 性格, 힘을 부여하고 있는 이른바 spiritualize되고 invisible한 「自然」인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이 小論에서 使用될 「自然」의 意味도 두 세계의 例外를 除外하고는 거의가 spiritualize된 「自然」의 意味에 焦點이 맞춰질 것이다.

6) T. Hardy, *Tess of the d’Urbervilles* (London: Macmillan, 1950), pp. 161-62.
다음부터 T.로 약칭하고 앞책의 page를 기입함.

3. 破壞的 性格의 自然

Hardy가 描寫하는 破壞的 性格의 「自然」은 非情하고 猛惡한 怪物같은 것이다. 그의 小說에서는 이 破壞的 「自然」 앞에서 恐怖에 戰慄하고 非難의 怨聲을 내뿜는 人物들의 모습이 때때로 描寫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의 典型的 自然描寫라고 할 수 있는 *The Return of the Native*의 Egdon Heath는 당장에라도 걸어나와서 人間을 갈기 갈기 찢어낼 것같은 거칠고 狂氣서린 印象을 주고 있다.

The place became full of a watchful intentness now; for when other things sank brooding to sleep the heath appeared slowly to await something; but it had waited thus, unmoved, during so many centuries, through the crisis of so many things, that it could only be imagined to await one last crisis—the final overthrow.⁷⁾

이러한 Egdon Heath를 “Hades”로서 嫌惡했던 Eustacia가 外部의 世界로의 脫出을 試圖한 밤은 마치 「自然」이 憤怒를 나타내는 것처럼 별 하나 없는 暗黑과 큰 빗방울을 동반한 暴風의 밤이었다.

It was a night which led the traveller's thoughts instinctively to dwell on nocturnal scenes of disaster in the chronicles of the world, on all that is terrible and dark in history and legend—the last plague of Egypt, the destruction of Sennacherib's host, the agony in Gethsemane. (R. N. p. 441)

實로 「自然」의 노여움이 演出한 것같은 暗黑과 暴風 속에서 Eustacia는 소용돌이 치는 濁流에 投身하게 되는데, 그녀의 「自然」이 지닌 非情함과 巨大한 힘에 대한 最後의 絶叫은 Egdon Heath도 戰慄할 만큼 凄慘한 것이었다.

‘How I have tried and to be a splendid woman, and how destiny has been against me! ... I do not deserve my lot!’ she cried in a frenzy of bitter revolt. ‘O, the cruelty of putting me into this ill-conceived world! I was capable of much; but I have been injured and blighted and crushed by things beyond my control! O, how hard it is of Heaven to devise such tortures for me, who have done no harm to Heaven at all!’ (R. N. p. 442)

이러한 人間을 悲劇으로 몰아넣는 非情한 「自然」에 대한 絶叫은 그의 많은 作品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I am beaten, beaten!”⁸⁾ 하고 외치는 Sue의 悲痛한 소리이며 自己의 野望을 「自然」의 힘에 의해서 無慘히도 紛碎당해서 “Throat-water-Sue-darling-drop of water-please-O please”⁹⁾라고 외치면서 죽어가는 Jude의 悲鳴이며,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不幸 앞에 눈물마저 말라버린 Tess의 슬픈 울부짖음이기도 하다.

이처럼 Hardy가 描寫하는 破壞的 「自然」은 生命을 부여받은 巨人, 怪物과 같은 印象을 주며 人間

7) T. Hardy, *The Return of the Native* (London: Macmillan, 19267), p. 4.
다음부터 R. N.로 약칭하고 앞책의 page를 기입함.

8) T. Hardy, *Jude the Obscure* (London: Macmillan, 1951), p. 410.

9) *Ibid.*, p. 483.

들의 外部에 存在하여 그들을 破滅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Hardy가 演奏하는 훌륭한 前奏이며, 人間의 內的 葛藤을 暗示하고 豫知케 하는 伴奏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의 小說에서는 「自然」의 invisible한 힘을 看破할 수 있는 人物과 할 수 없는 人物이 存在하고 있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즉 그가 描寫하는 人物 모두가 「自然」의 무서움 非情함을 看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大部分의 農民들이나 이른바 “sophisticate”된 人物들은 visible한 「自然」에 대해서마저도 전혀 無感覺한 것이다.

Hardy는 「自然」에 하등의 恐怖나 憎惡心を 품지 않는 人間들은 「自然」의 invisible한 모습, 즉 眞實한 「自然」을 看破할 수 없는 “machines”이며 「夢遊病者」라고¹⁰⁾ 말한다. 따라서 「自然」의 invisible한 모습을 看破하고 있는 人間만이 「自然」을 두려워 하고 反抗하고 非難하는 것이 可能하며, 「自然」의 眞實한 모습을 알고 있는 人間들인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그들의 「自然」에의 絶叫은 「自然」의 힘의 타격에 의해서 敗北한 弱者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人間의 可能性의 極限까지 「自然」과 맞서 싸우고 있거나, 혹은 끝까지 싸워낸 勇士의 喊聲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Hardy가 描寫하는 人物들은 「自然」에 대한 恐怖, 非難은 그들의 外部에 있는 「自然」이 아니라, 그들의 內部로 作用하는 「自然」에의 非難이며 그들 自身の 精神的 葛藤의 投影인 것이다. 이것은 Tess가 Alec에게 辱을 당한 후 숲에서 그녀가 품고 있던 外的 「自然」에의 恐怖는 결국 그녀 自身の 內部에서 造成된 것이며, 문제는 外部에 있는 것이 아니라 自己自身の 內部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에 如實히 나타나고 있다.

But this encompassment of her own characterization, based on shreds of convention, peopled by phantoms and voices antipathetic to her, was a sorry and mistaken creation of Tess's fancy—a cloud of moral hobgoblins by which she was terrified without reason. (T. p. 110)

따라서 Hardy의 人物들은 그들 自身이 받아들여야 할 非難이나 責任을 外的인 「自然」에 轉嫁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리고 그들이 外部의 「自然」에 非難, 恐怖의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은 그들이 아직 精神的으로 不安定하고 未熟한 時期이며 그들의 內部에 不幸의 原因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時期인 것이다. Tess가 外的인 「自然」을 두려워 했던 때도 그녀가 숲속에서 괴로운 精神的 葛藤을 겪고 「한 女性」으로 成長하기 이전의 「단순한 처녀」時代이다. 그리고 Henchard가 Somebody's hand에 의하여 操從당하고 있다고 느낀 때도 그 自身の 內部에 있는 缺陷을 認識하지 못하고 있는 때이다. 다음에서 좀더 具體적으로 *The Return of the Native*를 中心으로 이 문제를 檢討해 보기로 한다.

이 作品의 冒頭에서 登場하는 Egdon Heath에는 「明暗」과 「晝夜」라는 두개의 서로 對立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單純한 外的 「自然」의 모습은 아니며, 이 作品의 重要人物인 Clym과 Eustacia의 內面的 모습의 反映이며 投映인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內面的 未熟함에서부터의 脫皮를 促進시켜 그들이 窮極의 程度로 到達할 世界를 象徵한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이 作品은 Clym과 Eustacia라는 두개의 相反되는 힘, 性格이 꾸며내는 이야기라고 하겠다.

10) F. E. Hardy, *The Early Life of Thomas Hardy* (London: Macmillan, 1928), p. 243.

이 두 人物은 致命的인 未熟함, 缺陷을 지니고 있다. 빠리에서 故郷인 Egdon Heath로 돌아온 Clym은 Egdon의 一面인 아름다운, 優雅한 「낮의 얼굴」은 볼 수 있었으나, 다른 一面인 非情한 「밤의 얼굴」은 理解할 수 없었다. 그 一面的인 Egdon에 대한 見解가 暗示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思想」에 의해서 肉體를 침식당하고 있으며 空想 때문에 現實을 無視한다는 그의 內面的 缺陷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Eustacia에 대한 空想的 自己中心的 사랑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Eustacia도 “Queen of Night”에 어울리게 Egdon의 「밤의 얼굴」은 알고 있었으나 「낮의 얼굴」은 알지 못했다. 이것은 Clym이나 마찬가지로 그녀의 內面的 未熟함을 意味하는 것이다.

Eustacia에게는 「어떻든 世上事와는 逆行하려고 하는 本能」(R. N. p. 82)이 있었다. 이것은 “the appetite for joy”의 本能이며, 甘美로운 것을 希求하는, 人間의 힘으로는 制御할 수 없는 「自然」의 힘인 것이다. 最初の 場面에서의 Eustacia에게는 그녀의 內面에 作用해오는 「本能」이라는 「自然」의 힘도, 또 그 힘의 限界도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自然」이 갖는 「밤의 얼굴」의 表面的 非情함은 알고 있었으나 그 底邊에 있는 眞實한 모습은 아직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녀의 「自然」에 대한 無知는 처음 場面에서 그녀가 언제나 휴대하고 다니는 望遠鏡과 모래 時計에서 象徴적으로 表現되고 있다.

望遠鏡의 機能이 暗示하는 것처럼 그녀는 멀리 있는 것은 보이지만 가까이 있는 것은 볼 수 없었으며, 事物의 表面은 보이지만 그 底邊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았다. 말하자면 그녀는 幸福도 不幸도 항상 外部의 世界, 먼 世界에서 부터 찾아온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自己 自身の 內部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녀가 祈禱를 할 때도 언제나 “Send me great love from somewhere”(R. N. p. 82)이며 그녀가 바라는 사랑도 “To love to madness”가 아니라 “To be loved to madness”(R. N. p. 82)인 것이다. 이것은 換言하면 그녀가 Egdon Heath의 眞實한 모습을 못 보았던 것처럼 그녀 自身の 모습, 그녀에게 作用해오는 內的 「自然」을 못 보았던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望遠鏡과 마찬가지로 모래 時計도 그녀가 「時間」이라는 「自然」의 힘을 전혀 認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모래 時計란 그녀에게는 時間의 物質的인 現象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녀의 時間에 대한 關心은 時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래 時計를 使用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未來로 이어지는 「時間」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現在의 時間인 것이다. 그녀가 모래 時計를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愛人과 만날 때인데, 그것은 그녀에게는 未來라는 未知의 世界를 連結하는 時間의 흐름에서 現在의 時間을 分離시키는 것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즉 愛人과 만나는 快樂의 時間을 내일로 이어지는 번거로운 時間에서 解放시켜 마음껏 오랜시간 즐기 위해서인 것이다.

...she dimly fancied it arose that love alighted only on gliding youth—that any love she might win would sink simultaneously with the sand in the glass. She thought of it with an ever-growing consciousness of cruelty, which tended to breed actions of reckless unconventionality, framed to snatch a year's, a week's even an hour's passion from anywhere while it could be won. (R. N. p. 81)

바꿔 말하면 그녀는 時間의 經過라는 visible한 時間은 알고 있어도, 오늘과 내일로 連結하는 時間, 즉 未來의 그녀의 悲劇으로 이어지는 invisible한 時間은 理解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Clym과 結婚

한 후 情夫의 Wildeve와의 密會가 未來의 그녀의 悲劇으로 結付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時間이라는 「自然」의 힘을 알지 못하는 그녀의, 內面的 未熟함을 보게 되는 것이다.

Hardy의 世界에서는 人間的 外部에 나타난 이른바 visible한 時間의 經過가 直接 人間的 破滅의 發端이 되는 것이 아니라 人間的 內部에 있어서 時間의 經過라는 「自然」의 힘이 認識되고 있느냐의 여부가 人間的 運命을 크게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Tess가 Alec에 의한 不幸 때문에 온갖 고초를 경험한 후 아무 豫告도 없이 時時刻刻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時間을 깨달은 것이 그녀를 “simple girl”에서부터 “complex woman”(T. p. 127)으로 成長시키고 있는 것이다.

4. 創造的 性格의 自然

Hardy의 「自然」의 創造的 性格을 論할 경우 看過할 수 없는 要素는 「文明」이다. 왜냐하면 그의 「自然」은 破壞의 힘을 가진 加害者이지만 同時에 「文明」이라는 人間이 만들어 낸 힘의 被害者이기도 하며, 「文明」의 破壞力로부터 人間을 保護하고 「文明」의 자니친 行爲를 抑制하며 修正할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作品에서는 「自然」과 「文明」과는 항상 서로 對立하는 것으로서 登場하고 있다.

*The Return of lthe Native*의 冒頭에 나타난 破壞의 形相의 Egdon Heath가 “the final overthrow”(R. N. p. 4)를 加하기 위해 虎視眈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文明」이라는 이름의 敵인 것이다.

The untameable, Ishmaelish thing that Egdon now was it always had been. Civilization was its enemy;(R. N. p. 6-7).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Hardy가 한편에서는 人間的 힘이 미치지 않는 「自然」의 거대한 힘을 認定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文明」이라는 人間的 힘을 認定하고 있다는데에 그의 自然觀의 矛盾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Hardy는 「自然」의 거대한 힘을 發見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코 「自然」의 힘이 항상 完全하며 萬物의 完全한 支配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즉 그는 「自然」의 不完全함, 不備함을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人間的 悲劇을 描寫하고 그 안에서 「自然」의 힘의 不備함, 不完全함을 非難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Nietzsche의 宇宙觀을 評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He (Nietzsche) assumed throughout the great worth intrinsically of human masterfulness. The universe is to him a perfect machine which only requires through handling to work wonders. He forgets that the universe is an imperfect machine, and that to do good with an ill-working instrument requires endless adjustments and compromises.”¹¹⁾

11) F. E. Hardy, *The Later Life of Thomas Hardy* (London: Macmillan, 1930), p. 160.

여기에서 宇宙가 不完全하며 “endless adjustments and compromises”를 必要로 한다는 것은 그 調整이나 妥協이 人間の 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는 또한 *The Return of the Native*에서 “the defects of natural laws”를 認定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truth seems to be that a long line of disillusioned centuries has permanently displaced the Hellenic idea of life, or whatever it may be called. What the Greeks only suspected we know well; what their Aeschylus imagined our nursery children feel. That old fashioned revelling in the general situation grows less and less possible as we uncover the defects of natural laws, and see the quandary that man is in by their operation. (R. N. p. 205-6)

그러나 「文明」은 「自然」의 不備의 調整을 때때로 실수하여, 「自然」의 長點까지도 破壞해 왔던 것이다. 그 때문에 Hardy는 「文明」의 힘이 「自然」의 힘과는 다른 힘으로서 人間에게 苦痛을 주고 있는 것을 때때로 強調하고 警告하고 있다. 이것은 Jude로 하여금 Sue를 “a product of civilization”¹²⁾ 이라고 부르게 하고 있는데서, “natural law”와 “social law”를 항상 對立시켜 그 矛盾을 指摘하고 있는데서, 그리고 “village life”와 “town life”와의 對比에서 後者의 非人間性을 批判하고 있는데 등에서 잘 알 수 있다.

「文明」의 힘을 具體的으로 나타내는 첫째의 것은 「돈」이다. Hardy의 小說에서는 Victoria조의 「돈」의 威光이 때때로 人間の 마음도 肉體도 침식하여 人間을 破滅로 몰아넣고 있다. 오직 「돈」 때문에 教育을 받고 出世를 바라고 사랑을 하고 結婚한다. 物件賣買에 使用되어야 할 「돈」이 人間賣買에 使用된다. Arabella는 「돈」 때문에 Jude와 結婚하고, Henchard는 妻子息을 ‘five guineas’에 팔아넘기고, Giles는 가난하기 때문에 Grace와 結婚하지 못한다. Tess의 悲劇의 發端도 「돈」을 얻기 위하여 本意 아니게 家族의 犠牲이 될 수 밖에 없었던 데서 비롯된다.

Tess의 家族도 마지막에는 經濟的 困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Marlott村을 버리고 都市로 逃避해야만 했다. Hardy는 이 離村의 不合理性을 「文明」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비꼬아 말하고 있다.

These families, who had formed the backbone of the village life in the past, who were the depositaries of the village traditions, had to seek refuge in the large centres; the process, humorously designated by statisticians as ‘the tendency of the rural population towards the large towns,’ being really the tendency of water to flow uphill when forced by machinery.¹³⁾

이 離村은 단순히 大都市로 農村人口가 移動하는 문제가 아니라, 「自然」에서부터의 離反, 즉 人間 本來의 「自然」스러운 生活에서부터의 離別을 意味하며 同時에 都市가 지닌 非人間性으로의 移行을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The Hand of Ethelberta*의 Ethelberta 一家의 London 生活이 아무리 살기 위해서라고는 하나 悲劇의 이라기 보다는 喜劇의 이라는데서 잘 나타나 있다. Ethelberta

12) *Jude*, p.165.

13) *Ibid.*, p. 455.

가 社會的 體面을 유지하기 위하여 兩親, 兄弟間의 關係를 숨기고 社會的으로는 Petherwin 婦人과 고용인이라는 關係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실로 正常的인 人間關係라고는 할 수 없는 不自然스럽고도 僞善的인 生活이라고 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Ethelberta의 母親의 다음 말에서 그 不自然스러운 生活에서 오는 不安, 恐怖가 如實히 나타나고 있다.

‘...If you break down, and we are all discovered living so queer and unnatural, right in the heart of the aristocracy, we should be the laughing-stock of the country: it would kill me and ruin us all—utterly ruin us!’¹⁴⁾

그런데 Eustacia가 Egdon Heath로 부더「文明社會」로 脫出을 試圖한 밤에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直接的 障害物이 「自然」의 힘이 아니라 그녀가 憧憬했던 「文明社會」의 「돈」의 힘이었다는 것은 참으로 ironical한 運命을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A sudden recollection had flashed on her this moment: she had not money enough for undertaking a long journey…… Money: she had never felt its value before. Even to efface herself from the country means were required. (R. N. p. 441)

그러나 이 瞬間이야말로 그녀의 人間的 價値를 結定지은 一瞬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때 그녀는 Egdon Heath에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自身の pride를 버리고서라도 「돈」 때문에 Wildeve의 情婦가 되어 逃避할 것이냐의 兩者擇一의 岐路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換言하면 「文明社會」로의 逃避가 그녀의 人間으로서의 pride라는 그녀 本來의 「自然」스러운 모습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그녀가 확실히 認識했던 것은 바로 이 瞬間이었음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My Mind to be a Kingdom Is”가 暗示하는 것처럼 Egdon Heath로부터의 脫出은 「마음의 王國」에서 부터의 脫出을 意味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兩者擇一에 있어서 그녀의 投身自殺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녀는 말하자면 그녀의 Egdon Heath이며 그녀의 「自然」인 前者를 擇한 것이다. 즉 그녀는 Egdon Heath, 그녀의 「自然」인 世界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이 경우에 그녀가 나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重要하다. 왜냐하면 前述한 바와같이 그녀에게는 選擇의 餘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人間의, 말하자면 마음의 「自然」을 침식해가는 「돈」이라는 「文明」의 힘과 더불어, 「文明」의 影響을 直接 받는 「文明」의 根據地라고 할 수 있는 都市, 특히 그 都市의 霧圍氣 속에서 生活하고 있는 人間들의 反自然的, 思考 및 感情이 「自然」스러운 시골의 霧圍氣를 侵食하고 있는 것이다.

Jude가 憧憬하는 都市는 밤이 되면 “the city of light and lore”¹⁵⁾이지만 아침이 되면 햇빛도 많은 집의 부엌에서 솟아오르는 연기 때문에 구리빛으로 變하고 시골에서 흘러드는 新鮮한 空氣를 연기내음 나는 空氣로 바꿔버리는, 말하자면 煙氣의 都市이다.

14) *The Hand of Ethelberta*, p. 189.

15) *Jude*, p. 37.

Tall and swarthy columns of smoke were now soaring up from the kitchen chimneys around, spreading horizontally when at a great height, and forming a roof of haze which was turning the sun to a copper colour, and by degrees spoiling the sweetness of the new atmosphere that had rolled in from the country during the night, giving it the usual city smell.¹⁶⁾

都市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蒼白하게 하고 身體를 야위게 하는 不健康한 場所이다. 그리고 快樂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歡樂의 땅이며, 말하자면 “false hair”¹⁷⁾ “false dimple”¹⁸⁾에서 象徵되는 것처럼 태어난 대로의 「自然」스러운 것, 眞實한 것이 자취를 감추고 人工的인 虛偽가 橫行하고 있는 世界이다. 이 世界에 사는 者들은 “fashion’s slave”¹⁹⁾이며 돈, 物質의 奴隸로 化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이러한 人工的 物質的 虛偽에 침식당해서 眞實한 것, invisible한 것을 보는 눈을 喪失하고 있다. 이러한 「文明社會」가 만들어내는 人物들은 Fitzpierre이며, Manston, Troy, Alec, Sue, Arabella 등 非人間的 自己中心的인 人間들이다.

Hardy의 作品에서는 이러한 「文明社會」를 指向해서 오로지 自己自身の 榮光과 物質의 榮光을 希求하여 精神的으로나 物質적으로 「自然」의 惠澤을 입고 있는 農村을 떠나가는 Sue, Ethelberta, Arabella 등의 人物 등과, 逆으로 「文明社會」를 벗어나 「自然」으로 돌아오는 人物들이 있다. 그것은 Clym이며 Angel이다. 그리고 또한 「自然」에서부터 태어나 「自然」속에서 자라나고 「自然」을 自身の 世界로 하고 있는 人物들이 있다. 그것은 Tess, Marty Sowth, Giles, Diggory Venn 등이다.

이들 Hardy의 自然인들의 共通點은 그들에게 visible한 「自然」에 숨겨진 invisible한 모습을 보는 眼目, 「自然」의 소리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宇宙에 存在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것이 動物이건 植物이건 매우 깊은 愛情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有形 無形 할 것 없이 「自然」全體가 말하자면 그들의 家庭이며 이웃이고 嚴格한 指導者이기도 하며 慈愛로운 어머니인 것이다. *The Woodlanders*의 Giles와 Marty와의 「自然」에의 愛着, 同化는 그 典型的인 것이다.

They had been possessed of its finer mysteries as of commonplace knowledge; han been able to read its hieroglyphs as ordinary writing to them the sight and sounds of night, winter, wind, storm, amid those dense boughs, which had to Grace a touch of the uncanny, and even of the supernatural, were simple occurrences whose origin, continuance, and laws they foreknew.²⁰⁾

*Far From the Madding Crowd*의 Gabriel Oak는 宇宙의 巨大함에서부터 人間の 외소함을, 「自然」에 있어서의 人間の 位置를 가르침 받는다. 그는 人間の 位置, 外소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萬物에 대한 同情, 同族意識을 불러 일으켜지는 것이다.

16) *The Hand of Ethelberta*, p. 268.

17) *Jude*, p. 68.

18) *Ibid.*, p. 70.

19) *The Hand of Ethelberta*, p. 153.

20) T. Hardy, *The Woodlanders* (London: Macmillan, 1926), p. 415.

이처럼 Hardy가 描寫하는 創造의 性格을 지닌 「自然」은 「文明社會」의 汚濁에서부터 벗어나려는 人間들의 避難所이며 傷處입은 마음을 治癒해 주는 場所이며 人生을 알고 人間 自身을 아는 場所이기도 하다.

An environment which would have made a contented woman a poet, a suffering woman a devotee, a pious woman a psalmist, even a giddywoman thoughtful, made a rebellious woman saturnine.(R. N. p. 83)

5. 自然과 人間の 調和

Hardy의 關心은 「自然」과 이미 調和되고 있는 人物보다는 오히려 「自然」과 不調和된 人物에 있다. 그 不調和된 人物의 調和에의 勞力의 過程이 그의 가장 큰 關心事이며 小説家로서의 그의 主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highest flights of the pen are mostly the excursions and revelations of souls unreconciled to life, while the natural tendency of a government would be to encourage acquiescence in life as it is ...”²¹⁾

이러한 점에서 Hardy의 「自然」은 Wordsworth의 「自然」과는 對照的이라고 할 수 있다. Wordsworth가 「自然」을 神意의 顯現으로서 보고 人間과 調和된 「自然」을 描出하고 있는데 대하여 Hardy는 「自然」을 宇宙에 內在하는 巨大한 힘으로서 認定하고는 있으면서도, “omnipotent”한, “perfect”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imperfect”한, “defective”한 것으로서 捕捉하고 있다. 즉 Wordsworth가 「自然」을 善한 것으로서 認定하는 一元的인 見解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Hardy는 말하자면 善과 惡의 兩面을 認定하려고 한다. 그나마 그는 人間과 調和된 「自然」이 아니라 人間과 不調和된 「自然」에 그의 주된 關心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의 그의 作品은 모두가 그 調和를 探求한 그의 발자취이며 그 結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後期の 作品인 *Tess, Jude*는 그의 小説에 있어서 그의 調和를 追求한 終着點이며 總結算이라고 하겠다. 이들 두 作品에서는 初期의 作品, 특히 *The Return of the Native*에서 볼 수 있던 外的인 「自然」의 거치름, 威壓的인 樣相은 볼 수 없으며, 오히려 人間の 內面的인 「自然」의 冷酷함, 激烈함에 作家의 눈에 쏠리고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이들 두 作品은 人間の 內的, 精神的 「自然」을 探求한 作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作品의 主人公인 Tess와 Jude가 自然律과 社會法과의 調和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肉體와 精神과의 均衡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가, 등의 문제 때문에 苦悶하고 傷處입었다는 점에서 두 作品은 共通되고 있다고 하겠다.

Tess를 考察할 경우 먼저 그녀의 周邊의 外的인 것과의 갈등과 그녀의 內面的 葛藤으로 區分해서

21) *The Early Life of Thomas Hardy* p. 314.

생각할 必要가 있다.

먼저 그녀가 처음 만나게 되는 人物은 Alec인데, 그는 性本能의 化身이라고 할 만큼 抽象化된 存在이다. 換言한다면 그의 周邊의 環境이 말해주는 것처럼 人工的으로 變造된 人間이며, 그의 性格 그 自體가 唯物的이며 固定化 된 것으로, 하등의 人間的 感情도 精神性도 찾아볼 수 없는 人物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Alec은 物欲과 快樂만을 바라는 文明社會의 異常性의 一面을 象徵하는 「半人半獸」 같은 人物이다.

다음 人物인 Angel Clare는 Alec와는 對照的으로 그의 環境인 書籍, 大學教育, 學位, 聖職, 父子의 神學上的 討論 등이 暗示하는 것처럼 知性和 精神性 만으로 살아가는 人物의 典型이다. 그의 경우에도 그의 이름이 暗示하는 것처럼 文明社會의 異常性의 다른 一面인 極端의 知性, 精神性을 象徵한다. Alec과는 다른 意味에서 말하자면 「半神半人」인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虛偽와 虛構의 世界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는 共通하다.

Alec의 경우는 먼저 家名 그 자체가 단순히 세상 체면 때문에 d'Urberville를 詐稱하고 있는 僞名이다. Alec의 母親이 커워워하는 새는 「거짓말」(bullfinch)이며 Alec이 몇번이고 Tess에게 손대지 않겠다고 하는 約束은 언제나 거짓말이다. 그의 欺瞞性은 한층 더 發展하여 六章의 「改宗者」에서는 그가 過去의 罪를 뉘우치고 說教師로서 登場하고 있다. 그러나 Tess를 보는 순간 敬虔한 說教師의 僞善은 色魔의 本性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다. 이처럼 Alec은 헤아릴 수 없을만큼 온통 거짓말로 뭉쳐진 人物이다.

한편 Clare도 Alec의 거짓말과는 質的으로는 다르나 그의 極端의 空想과 知性이 만들어낸 非現實的인 虛構와 僞善의 世界에 살고 있다. 이것은 Tess의 過去의 告白과 그 後의 場面에서 잘 나타나 있다. Clare가 London에서 있었던 어떤 女性과의 過去를 告白한 후, Tess가 告白의 重大性을 暗示하자 그것을 가볍게 一蹴했다가 Tess의 告白이 끝나자마자 苛酷하게 그녀를 책망하는 것이다. 또 그는 Tess의 家系가 d'Urbervilles家임을 알고 “For your own sake I rejoice in your decent”(T.p. 244) 라고 기뻐했는데도 不狗하고 Tess의 告白을 들은 후에는 “Here was I thinking you a new-sprung child of nature; there were you, the belated seedling of an effect aristocracy!”(T. p. 299)라고 그의 態度를 表現한다, 그의 Tess에 대한 愛情은 너무나 架空的인 것이며 非現實的인 虛構의 世界의 產物이었던 것이다.

Yet Clare's love was doubtless ethereal to a fault, imaginative to impracticability. (T. p. 314)

「自然」과 「文明」이 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存在인 것처럼 「文明社會」의 兩極端을 代表하는 이 두 사람과 “a fresh and virginal daughter of nature”(T. p. 157)인 Tess는 元來 서로 對立되는 要素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의 虛偽와 虛構를 看破할 手段으로서의 그녀의 마음의 眞實이라는 尺度가 있을 뿐이다. 그것이 그녀의 唯一한 武器이며 辯護人인 것이다.

Tess의 一生에는 그녀의 人生을 決定지을 兩者擇一의 機會가 적어도 세번 있었다. 그 兩者擇一이란 前述한 Eustacia처럼 그녀의 마음의 眞實을 固守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포기해서 虛偽에 따르는냐는 것이다. 그 첫번째는 Tess가 Alec에 의해서 辱보임을 당한 후 그녀의 故鄉인 Marlott村으로 돌아오는 途中에 뒤쫓아 온 Alec이 그녀의 사랑을 確認하려고 한 때이다. 그 때 그녀가 마음의 眞實

을 포기하고 그를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當然히 그의 아내의 자리가 주워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의 眞實을 背反할 수는 없는 것이다.

'I have said so, often. It is true. I have never really and truly loved you, and I think I never can.' She added mournfully, 'Perhaps, of all things, a lie on this thing would do the most good to me now; but I have honour enough left, little as 'tis, not to tell that lie. I did love you I may have the best o' causes for letting you know it. But I don't' (T. p. 101)

두번째는 Clare에게 그녀의 過去를 告白한 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가 "Tess! Say it is not true!" (T. p. 306) 라고 다구치는데 대하여 'It is true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그 한마디에 그녀의 運命의 모든 것이 걸려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機會는 마침내 Alec의 손아귀에 떨어진 Tess가 그녀를 맞으러 온 Clare와 만나서 再次 兩者擇一의 切迫할 岐路에 서게 되지만 Alec을 殺害함으로써 虛偽의 世界에서부터 또다시 그녀의 마음의 眞實을 되찾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몇차례의 兩者擇一의 試鍊에서 그녀의 마음의 眞實을 끝까지 固守한 忍耐가 Clare를 虛構의 世界에서 救出하고 그와의 調和를 얻게되는 至福을 남겨주고 있다. 그녀가 그녀의 마음의 眞實에 항상 忠實했던 것은 곧 그녀의 마음의 「自然」, 즉 그녀의 本然의 모습에 忠實했던 것을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外部의 存在와의 葛藤은 同時에 Tess의 内部의 葛藤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그녀의 内部로 作用하는 「自然」의 힘을 分析해 본다면 그 첫째는 이른바 "appetite for joy"라는 本能이며 두번째는 Pagan d'Urberville의 血統을 이은 父親으로부터의 精神力, 그리고 母親에서 물려받은 魅惑의인 용모와 操心성의 缺如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自然」의 힘과 同居하고 있는 다른 힘은 이른바 「文明」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녀의 知性的 힘이다.

먼저 그녀의 不幸의 發端인 Alec에 의한 受侮의 커다란 原因의 하나는 母親에게서 물려받은 操心성의 缺如라는 「自然」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Car와 다투게 된 때, 아무런 警戒도 하지 않고 Alec의 말에 탔던 일, 또 그 途中 졸려서 잠이 들어 길을 確認하지 않았던 일, 그리고 Chase의 숲에서 Alec을 믿고 잠자버렸던 일등이 그 操心성의 缺如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 不幸 以前의 그녀의 知성은 아직 그 操心성의 缺如라는 「自然」의 힘을 豫見하고 防止할 힘을 갖지 못한 child의 狀態였다. 이것은 그녀가 "...Why didn't you tell me there was danger in men - fork? Why didn't you warn me?" (T. p. 106)라고 母親에게 원망하고 있는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 不幸으로 말미암아 自身에게 作用하는 操心성의 缺如라는 「自然」의 힘의 存在와 그 結果(子息의 誕生, 죽음)를 알고, 숲속에서의 思索을 통하여 그녀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녀를 "child"로부터 "girl"로 나아가서는 "complex woman"으로 成長시키고 있는 것은 주로 그녀의 知性的 힘인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人生의 方向과 意欲을 그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도 그녀의 知性的 힘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不幸에 의하여 그녀는 "a liberal education"(T. p. 27)을 받은 것이며 "her mental harvest"(T. p. 162)를 얻은 것이다.

그리고 Clare의 求婚에 대하여 그녀가 苦悶하는 것은 Clare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自己快樂 本能과 나중에 그녀의 過去를 알고 그를 슬프게 하고 後悔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主張하는 知性的 司祭

라고 할 수 있는 良心의 소리와 의 相爭이기 때문이다.

The struggle was so fearful; her own heart was so strongly on the side of his—two ardent hearts against one poor little conscience—that she tried to fortify her resolution by every means in her power. She had come to Talbothays with a made-up mind. On no account could she agree to a step which might afterwards cause bitter rueing to her husband for his blindness in wedding her. And she held that what her conscience had decided for her when her mind was unbiassed ought not to be over ruled now. (T. p. 228)

快樂本能을 抑制한 그녀의 知性에 의한 判斷은 옳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만약 本能이라는 「自然」의 힘의 命에 따랐더라면 一時的으로는 幸福했을지라도 반드시 그녀의 過失에 대한 良心의 苛責이 크나큰 苦痛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過失이 밝혀졌을 때에는 그녀의 決定的 破滅이 될 것이 分明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Jude*에서 本能이 命하는 데로 快樂을 耽하는 것이 「自然」의 意圖라고 생각했던 Sue가 *Little Father Time*의 손에 의하여 두 子息을 잃게 되었을 때, 悲痛한 後悔의 울부짖음에서도 如實이 알 수 있는 것이다.

Hardy는 作品을 통하여 Tess가 社會法은 지키지 않았으나 自然律은 어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T. p. 110) 그러나 이 말에는 矛盾이 엿보인다. 왜냐하면 Tess는 快樂本能이라는 「自然」이 명하는 데로 行動하지 않고 知性的 힘에 의해서 進路를 決定하고 있으므로 當然히 自然律에 대한 不服從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矛盾에 대해서는 前述한 「Hardy의 自然은 完全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想起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즉 Tess는 操心性的 缺如라는 「自然」의 힘의 不備를 그녀의 知性에 의하여 깨닫고 操心性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며 또 快樂本能의 限界라는 不備를 知性에 의하여 알고 抑制하고 있는 것이다. Hardy의 「自然」은 知性에 의하여 그 不備를 修正받고, 혹은 妥協에 의해서만이 풍부해지고 人間과의 調和가 可能해지는 것이다. 逆으로 知性は 「自然」에 의해서 그 지나친 行爲를 是正받고 補充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Tess가 그녀의 内部에 있는 「自然」과의 葛藤에 의하여 修正하고 妥協하여 보다 充實한 「自然」과의 調和를 이르고 있는 것은 Hardy가 말하는 自然律에의 服從을 意味하며, 말하자면 作家의 自然觀을 具現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觀點에서 때때로 論難의 對象이 되어온 이 作品의 副題인 “a pure woman”은 단순히 Clare에게 忠實하고 精神的으로 純潔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自然」에 대한 純潔 “a pure woman to Nature”를 意味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結 語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Hardy의 小說에서 描寫되고 있는 「自然」은 窮極의으로는 人間의 周邊에 감도는 自然, 혹은 自然 現象과 같은 말하자면 visible한 自然을 意味한 것은 아니며, 人間의 內面에 있는 invisible한 「自然」을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獨特한 自然描寫의 苛酷함은 人

間의 內的「自然」의 苛酷함의 投影이며 象徵인 것이다. 그리고 그 內的「自然」의 힘도 絶對的인 힘이거나 完全한 힘이 아니며, 人間의 知性的 힘에 의해서 補充하고 修正하여야만이 비로소 人間이 下等動物의 世界에서 脫皮하여 새로운 人間으로 成長할 수 있는 것이다.

Hardy가 이처럼 人間의 內面으로 깊숙히 파고들어 快樂本能, 遺傳이라는 「自然」의 힘을 銳利하게 파헤치고 그 힘과 限界를 提示했던 것은 그것이 아무리 非情하고 “pessimistic”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人間이 놓여진 最惡의 狀態를 제시함으로써 最善의 삶의 길을 찾아내려는 그의 깊은 人間愛가 基盤이 되고 있다는 것을 看過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自然觀은 文明에 대한 銳利한 批判이며 警鐘이기도 했던 것이다.

Summary

Nature in Thomas Hardy's Novels

Kim Soo-jong

In Thomas Hardy's novels, nature carries a significant meaning. For him, it is not a visible landscape or natural phenomenon but is invisible and spiritualized world in his mind. This nature is generally not only considered as brutal, lowering dark and menacing but also as an external and physical existence which leads human fate to destruction.

It is true that for Hardy, nature is a source of and repository of all energies that control human beings. But the external and destructive energies imply conflict of the inner world of human beings. In other words, the fate of Hardy's heroes and heroines are determined by their capacity to see into the invisible truth of nature.

However, nature is not omnipotent. It is imperfect existence and is required to be adjusted and compromised by the power of human beings. Hardy's main concern is to trace the process of how to harmonize human beings to nature. Although there are brutal and pessimistic qualities in his way of expressing nature, this is derived from his deep affection for human beings as a means of showing the worst state in order to secure the best remedy for human condition.